

‘고향’을 매개로 한 도시공동체 연구: 재경울곡면향우회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이승수**·이규빈***

1. 서론

1) 연구목적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는 산업화, 공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출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의 인구유출은 지방인구의 격감을 초래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현재화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농촌사회는 점차 과소화가 진행되어 마을의 존속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아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 고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고향에 대한

* 이 연구는 2012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교수

*** 중앙대학교 대학원 비교민속학과 석사과정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마을에서는 전통문화·예능·관습 등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고, 도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신은 고향이 없다는 의식이 일반화됨과 동시에 그들에 의해 ‘내 고향 찾기’가 시작되고 고향을 창출하거나 고향을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날 과소지역이 놓인 상황은 그다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과소지역은 더 이상 수동적 자세로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정책 전개로 전환하여 도·농간의 교류를 추진하거나 도시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산품, 관광 안내의 장으로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연동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붕괴의 위기에 놓여있는 고향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도시 이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1960년대부터 향우회를 조직하여 출신지 고향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향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구 과밀지역인 도시에서 과소지역인 농촌을 모태로 하는 도시 이주민에 의해 결성된 단체이다. 이들은 도시에 살면서 고향에서의 공동체 결합관계를 도입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도시 내에서 뿐만 아니라 고향 마을에도 전개하고, 그 속에서 마을에 전승되는 전통문화의 유지, 계승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 이주민들에게 고향마을의 공동재산을 지키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자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이나 문화·산업 등을 도시를 향해 효과적으로 발신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의 이미지 향상,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도시민의 농촌에의 정주 유도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때 향우회는 출신 자치단체를 이해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자치단체의 시책을 전개하는데 교두보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향우회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국내의 경우 그렇게 많은 편

이 아니다. 그 중 본 연구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을 통해 출향인사가 도시생활에 적응하는 방식과 양상을 분석한 연구(이문웅 1986: 101-153), 향우회가 도시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서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박성운 2001), 한국 도시에서 향우회가 어떻게 조직되는지 그 패턴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논의한 연구(황익주 2002: 107-142), 향우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연결망이 어떤 구조와 형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집단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 연구(정병은 2007: 331-358) 등이 있다. 한편 국외 연구 특히 일본의 경우는 향우회와 관련한 연구가 많다.¹⁾ 향우회와 관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30년대부터인데 당시에는 주로 ‘향토교육’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등에서 ‘동향집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990년대의 ‘고향론’, ‘마을 만들기’로 그 범위를 확장해나갔다. 2000년대에는 향우회 뿐 아니라 현인회(한국의 도민회)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연구 성과가 “동향집단의 민속학적 연구”(松崎憲三 2002)이다. 여기에는 총 8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데 본 연구와 관련하여 동창회를 향우회와 결부시켜 논의한 연구(越川次郎, 2002: 161-196)는 필자의 문제의식에 참고가 되었다. 또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고향의 관광 상품화 혹은 자원화를 다룬 “고향의 자원화와 민속학”(岩本通彌 2007)이 있다. 이 연구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향우회를 ‘고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향우회와 동창회를 서로 다른 이질적 단

1) 여기서 일본의 경우를 거론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향우회가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오늘 날에도 많은 향우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향우회와 관련 연구 성과물(논문, 단행본, 잡지 등) 수백 편을 주제별(동향집단, 도시와 농촌, 고향론, 마을 만들기, 향토교육)로 잘 정리해 두고 있어(松崎憲三 2002 부록) 향후 비교의 시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이다.

체로 간주하여 향우회를 구성하는 토대가 학교 동창회라는 사실을 등한 시해 왔다. 또한 향우회의 최소 단위인 면 단위 향우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경울곡면향우회를 사례로 들어 이것을 ‘고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로 이주한 출향인사들이 자신들의 주된 생활터전인 도시에서 어떻게 향우회를 조직, 운영하고 또 교류하며 소통하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고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속한 향우회는 고향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편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들은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인류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마을의 고향 이미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목하여 재경울곡면향우회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2) 연구내용

울곡면은 경상남도 합천군의 1개 읍, 16개 면 중의 하나이다.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쪽 경상남도의 서부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에서 버스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지역 중 하나이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울곡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갑산면, 울진면, 천곡면이 통합된 곳이다. 면소재지는 영전리에 있고 대체로 200m 이하의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면의 서북부에는 만대산, 남부에는 대암산 줄기가 뻗어 있다. 황강이 면 중앙을 곡류하며, 곳곳에 소규모의 평야가 분포해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콩·무·배추 등이며, 최근에는 딸기, 마 등 농·특산물 재배가 활발하다. 영전·내천·두사·갑산·낙민 등 법정리 기준 14개 동리, 행정리 기준 26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주민들은 면 중앙을 가로질러 흐르는 황강을 기점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지역

을 구분하고 있는데, 강남에는 낙민, 두사, 영전, 내천, 갑산, 문림, 본천이 속하고 강북에는 임북, 와리, 제내, 노양, 율진, 향곡, 기리가 여기에 속한다.

면내의 학교는 초등학교만 있는데 1990년대까지 율곡초등학교(1941~1999년), 지강초등학교(1970~1995년), 문림초등학교(1960~1995년), 계산분교(1959~1993년), 항제분교(1973~1991년) 등 6개의 초등학교가 존재했으나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영전초등학교(1939년~)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이 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현재는 영전초등학교만이 면소재지에 남아 있다.

재경울곡면향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에 결성되었다. 그동안 향우회는 각종 연례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며 구성원 또한 다양하다. 한 예로, 매년 가을 서울 시내 대형 운동장을 빌려서 개최하는 ‘재경합천군향우회체육대회’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데, 최근 3년간 참가인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²⁾ 이처럼 향우회의 규모가 크고 활성화된 이유는, 1983년에 향우회가 결성된 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재경합천군체육대회’(1985년~), ‘고향물품 팔아주기 운동’(1991년~), ‘대야문화제 후원’(1995년~), ‘합천특산물판매운동’(1995년~), ‘율곡면 노인정 설립’(2006년) 등의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밤골모임, 초등학교 동창회 기수별 모임 등 향우회의 산하조직이 각각의 기능을 담당해서 조직이 잘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 재경울곡향우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 2006년(향우회원 3,700여 명, 초청인사 100명), 2007년(향우회원 4,000여 명, 초빙인사 100명), 2008년(향우회원 4,800여 명, 초빙인사 200명). 연도별 참가인원현황은 재경합천군향우회 체육대회 자료집을 참조한 것임.

첫 번째, 본 연구에서는 재경울곡면향우회가 어떻게 창립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이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임원과 일반 회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향우회는 초등학교 동문 기수별로 구성되어 있어 동창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설을 입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단체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토대로 창립되었고 그 운영에 있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동창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두 번째, 재경울곡면향우회가 전개하고 있는 행사와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향우들의 정기적인 행사인 정기총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최되는지 또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둘은, 재경울곡면향우회보다 상위 단체인 재경합천군향우회 주최로 열리는 행사 체육대회에 그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향 울곡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향우들에게 어떻게 의미 부여되어 소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은, 상호부조로서의 회원들의 경조사 참여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기총회, 체육대회가 향우회의 공식적인 행사라면 경조사는 비공식적 행사로 볼 수 있다. 이 행사를 통해 향우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향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넷은, 향우회에서는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향우회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고향 울곡면의 각종 행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은,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가 향우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향사람들과 향우회를 결합시키는 중심점으로서 울곡면 내 개인 및 기관단체의 역할은 크다고 생각한다. 향우회의 회칙에 ‘향토발전사업’이라는 단체의 목적을 구가하며, 그 방법이나 성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실천적 행동을 그 목적에 넣음으로써 향우들은 고향과의 관계를 한층 강하게 느끼고 동향집단으로서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울곡

면 내 다양한 기관단체는 향우회에 그 구성원을 결부시키는 데에 중심점으로서 기능하리라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향우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 천착함으로써 향우회의 최소 단위인 면 향우회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연구방법

필자가 본격적으로 향우회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학과에서 주관하는 현지조사의 일환으로 2006년에 개최된 남원춘향제를 조사했을 때였다. 그때 많은 재경남원향우회 관계자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들과의 인터뷰 도중에 남원춘향제가 향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듬 해 3월부터 재경남원향우회를 연구대상으로 각종 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재경남원향우회는 1964년에 향우회가 결성된 후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재경향우회장기 장사씨름대회’(1985년~), ‘어려운 고향 이웃돕기 운동’(1998년~), ‘남원춘향제 후원’(2002년~), ‘이색 고향사랑운동’(2003년~), ‘남원특산물판매운동’(2004년~), ‘지리산 춘향골 홍보관 창립’(2006년~) 등의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재경남원향우회는 남원에 있는 고향사람들을 비롯하여 각종 기관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재경남원향우회의 하부에는 각 면 단위의 향우회가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재경남원향우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부 단위인 면 향우회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 면 단위의 향우회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해당 면 향우회의 회장을 비롯하여 각급 임원들 그리고 실무를 맡고 있는 총무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놓지 않는 긴장의 끈과 경계심은 필자로 하여

금 표층적인 자료수집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조사연구의 어려움에 놓여있었을 때 고향의 초등학교 선배인 재경울곡면향우회 총무의 권유로 2008년 2월에 개최한 재경합천군향우회 임원 신년 하례회 겸 4월에 있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당시는 학문적인 관심보다 필자의 고향과 관련된 군향우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강했다. 이 날 모임의 참석을 계기로 다시 선배의 부탁을 받고 그 해 4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합천군향우회 정기총회에 도움이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당시 필자가 한 일은 접수대에서 찬조금을 낸 사람의 명단을 참가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기총회의 진행과정을 참여 관찰하고 몇몇 향우들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

두 차례에 걸친 향우회 모임의 참석이 계기가 되어 전 재경울곡면향우회 총무로부터 재경울곡면향우회의 회원가입을 권유받아 2008년 5월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총무의 일을 도와 가며 재경울곡면향우회의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³⁾ 이는 필자의 고향과 관련된 향우회를 사례로 조사·연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고향사람들을 대함으로써 라포를 형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고향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임이나 행사의 참여가 용이하고 비교적 쉽게 각종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추후에 남원향우회와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재경남원향우회에 대한 조사를 장기적인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먼저 재경울곡면향우회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때부터 필자는 한편으로는 재경울곡면향우회

3) 현지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각주 7)과 제3장 향우회의 행사 및 활동을 참조.

의 회원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향우회를 조사하는 연구자로서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두 모습을 지닌 필자는 조사연구를 하는 동안 양자를 구별 짓는 작업에 매우 고민을 하게 되었다. 즉 향우회의 실태를 파악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과 그렇게 했을 경우 자료의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향우회의 회계자료, 회칙 등의 문헌자료는 객관성을 띤 자료로 자리매김 하고 필자의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 중 일부는 주관적으로 취사선택된 결과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해석에 있어 아무리 객관적 서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해석이라는 필터링의 산물이기 때문에 주관성을 내포하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실천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했다.

필자가 조사과정에서 재경울곡면향우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내용이었는데, 그 이전의 자료는 몇 번에 걸쳐 집행부가 바뀌면서 자료의 정리 및 보관이 소홀해져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자료의 주된 내용은 각 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임원회의, 정기총회 등과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하여 처음 1년 동안은 향우회 운영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 세부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였다. 그리하여 1년 동안의 일련의 행사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록함과 동시에 영상자료도 확보하였다. 조사 2년 차에는 재경울곡면향우회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상위 단체 재경합천군향우회의 모임이나 행사에도 가능한 참석하여 양자가 어떠한 구도 속에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과

정에서 군향우회 회장을 비롯하여 타 면 향우회 회장, 부장 등의 임원 및 일반회원들까지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두 향우회가 비록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문화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재경경상남도도민회의 공식적인 행사에도 수차례에 걸쳐 참석하였다. 예를 들어 3월의 정기총회, 4월의 식목일 행사, 7월의 바둑대회, 9월의 등산대회, 10월의 경남도민체전 등이다. 나아가 도민회의 행사 참여는 ‘국민통합전국시도민연합회’⁴⁾의 행사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는 향우회 활동을 통해 수집된 문헌자료뿐 아니라 2년여 동안 각종 행사 및 모임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방문하여 참여관찰 및 실천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주로 활용되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2. 재경울곡면향우회의 창립배경과 구성

1) 재경울곡면향우회의 창립배경

울곡면에는 지금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대부분은 60세를 넘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령분포는 오늘날 농촌마을의 고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국사회의 근대화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출이 급속도로 진행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울곡면 사람들의 도시로의 인구 유출도 1960년대 초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고향을 떠난 동기는 각 개인마다 서로 다르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 자녀 교육, 새로운 구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국민통합전국시도민연합회는 2010년 11월 각 시·도의 도민회를 연합하여 만든 단체이다.

그렇다면 재경울곡면향우회는 어떠한 계기로 창립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경울곡면향우회는 각박한 도시생활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고립감, 열등의식 등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의 필요성에 의해 창립된 단체가 아니었다. 환언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경 울곡면 출향인사들을 둘러싼 당시의 정치적 상황 전개가 향우회를 창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낳게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울곡면 내천리 출신인 전두환 씨가 1978년 육군 제1사단장을 거쳐 1979년 국군보안사령관이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울곡초등학교 동문들을 사이에서 총동창회를 창립하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울곡초등학교를 졸업한 전두환 씨의 형인 전기환 씨가 있었다. 당시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전두환 씨가 고향 출신이라는 점과 그의 친형이 모교의 동문이라는 점은 동창회를 창립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배경 속에서 울곡초등학교 총동창회를 창립하고자 하였지만 고향을 떠나 온지 오래된 동문들은 실제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와중 후술하는 이희종(78세, 남) 씨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향사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추천하게 되면서 그가 전면적으로 나서 동창회 창립 일을 맡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9년 가을 울곡초등학교 총동창회가 창립되었다.

이렇게 창립된 울곡초등학교 총동창회는 이후 1983년 재경울곡면향우회를 창립하는데 있어 토대가 된다. 울곡초등학교 총동창회가 창립되고 1년 뒤인 1980년 9월 전두환 씨가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재경울곡면향우회를 창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재경 울곡면 출향인사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런데 막상 향우회를 조직하려고 해도 누가 누구인지 고향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울곡초등학교 총동창회 재경모임에서 총무를 맡아 온 이희중 씨가 적임자로 추천되어 그가 재경울곡면향우회 창립을 위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 잠시 이희중 씨에 대해 살펴보자.

이희중 씨는 1952년에 울곡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급장을 맡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는 많은 사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그는 비록 울곡초등학교 졸업생이었지만 출신지가 강북의 제내 마을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남의 영전초등학교 출신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 당시 그가 학교를 다닐 때 합천군 내 중학교는 합천중학교⁵⁾와 초계중학교⁶⁾ 두 개뿐이었다. 그리하여 울곡면 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대부분 합천중학교로 진학을 했고 일부는 초계중학교로 진학했다. 그리고 진주, 대구, 마산 등 인근 도시로 중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은 1개면에 한, 두 명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울곡면 내 초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은 합천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그가 합천중학교에 5회(1956년)생으로 입학했을 때 그는 1등으로 입학했고 그 후 3년 동안 급장을 맡았으며 3학년 때는 대대장을 맡았다. 그 후 합천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3년 동안 급장을 맡았고 3학년 때는 또 대대장을 역임했다. 특히 당시에는 중, 고등학교를 합쳐서 아침 조회를 했을 뿐 아니라 그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군사훈련 즉 교련을 상당한 수준으로 하곤 했었는데 그 지휘를 대대장을 맡았던 그가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자연스럽게 학생간 부들을 알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 또한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후 그는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1회로 졸업하고 1962년에 상경하여 회사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77년 회사생활을 마치고 장인의 도움을

5) 합천중학교는 합천 공립 초등학교를 승격하여 1951년 8월 31일에 중학교로 개교하게 되었다.

6) 초계중학교는 1952년 6월에 창립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받아 현 종로 YMCA 옆에서 금·은보석방을 차려 운영하게 되었다. 당시 종로에는 금·은보석방이 10개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리하여 그의 가게는 항상 많은 고향사람들이 찾아들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희중 씨는 재경울곡면향우회의 창립을 위하여 먼저 서울,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각 마을별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 책임자가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여 사람들을 모으도록 했다. 그리고 회장에는 이영석 씨가 추대되었는데 그는 당시 공군 대령으로 예편한 인물로 울곡면 출신 중 군인으로서는 최고 높은 계급이었다. 그리하여 1983년 봄 재경울곡면향우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재경울곡면향우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재경울곡면향우회의 창립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동경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또 도시생활의 어려움과 고독, 그리고 취직문제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향우회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재경울곡면향우회를 창립하게 된 계기는 고향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출향인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향우회 조직이 없었다. 또 재경합천군향우회 산하에는 이미 타 면 향우회가 창립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지만 울곡면만은 향우회 조직이 없었다. 이러한 주변 상황은 고향 출향인사들에게 향우회 결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도록 하였고 그 결과 향우회가 창립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재경울곡면향우회는 울곡초등학교 총동창회의 창립이 그 토대가 되었고 그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울곡면 내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회 회원들이었다. 또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선후 배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향우회의 창립 배경에는 고향 마을 출신인 전두환씨의 대통령 취임과 맞닿아 있었다.

2) 재경울곡면향우회의 구성 및 역할

재경울곡향우회는 이름 그대로 현재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경상남도 합천군 울곡면 출신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회칙의 회원자격을 살펴보면 ‘본 회의 회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울곡면 출신 및 연고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회원 명부를 살펴보면 서울을 둘러싼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울곡면 출신 및 연고자까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우회의 회칙에 따르면 임원구성은 고문 약간 명,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운영위원 ○○명, 간사장 1명, 총무 1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행 임원구성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 구체적인 자료가 분실되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창립 이후 회칙 개정은 두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대 집행부의 총무를 맡았던 이회중씨의 말에 따르면 1983년 당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운영위원 약간 명, 간사장 1명, 감사 2명, 총무 1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다 초대회장이 임기가 끝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명예회장 약간 명을 두는 제1차 회칙 개정이 있었다. 제2차 회칙 개정은 제7대 집행부 때(2001년)었는데 이때부터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두게 되었고 간사장을 운영위원장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9대 임원 명단을 보면 부회장은 10명, 총무는 2명으로 늘어났으며, 고문은 10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회칙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자문위원이 16명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대 임원 이전까지의 역대 회장이 대부분 고문으로 추대되었는데, 이는 마을과 향우회의 어른으로서 구심점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회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11대 집행부가 향우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재경울곡향우회의 임원은 총 65명이며, 일반회원은 약 240명, 불명확한 회원은 5명 정도이다. 이

를 합치면 약 3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재경울곡향우회의 여성회원은 회원명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40명가량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대개의 향우회의 여성비율에 비하면 꽤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비율로 보면 15% 정도가 여성회원인 것이다. 그러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부회장 1명, 여성 총무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점은 향우회가 아직까지 남성중심의 단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재경울곡향우회의 회원구성을 정리해보면 서울을 둘러싼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울곡면 출신 및 연고자가 전체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약 20%에 달하는 65명이 임원이며, 약 15%에 달하는 40명 정도가 여성회원이다. 임원의 경우, 회칙에 명시된 편성을 넘어 그 수가 많이 늘어났다. 또한 마을별 회원 수에 따른 임원구성

〈표 1〉 재경울곡면향우회 임원 및 회원 구성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운영위원	회원	임원총합	회원총합
임북	2	3	•	1	•	•	1	17	7	24
제내	1	3	•	•	•	•	5	5	9	14
향곡	1	•	•	•	•	•	•	13	1	14
노양	1	1	•	•	•	•	1	12	3	15
와리	1	•	•	•	•	•	2	7	3	10
울진	1	1	•	•	•	•	2	10	4	14
낙민	1	•	•	•	•	1	3	19	5	24
문림	•	5	1	1	•	•	2	39	9	48
본천	•	1	•	5	•	•	1	21	7	28
갑산	•	1	•	•	•	1	1	16	3	19
두사	•	1	•	1	•	•	2	11	4	15
영전	•	•	•	2	1	•	4	53	7	60
내천	•	•	•	•	1	•	•	19	1	20
기리	•	•	•	•	•	•	2	1	2	3
총합	8	16	1	10	2	2	26	243	65	308

비율도 일정하지 않았다. <표 1>은 현행 11대 집행부의 회원명부를 토대로 임원 및 회원 현황을 재구성한 것이다.

재경울곡향우회의 총원 대비 임원비율은 20%인데 비해 마을별 임원 비율을 보면 그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회원이 많아 임원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영전리의 경우 총 회원 수는 60명으로 최다이나 임원은 7명으로 임원의 비율이 비교적 낮다. 반면 제내리의 경우 일반회원의 수는 5명으로 가장 작은 편에 속하나 임원은 9명으로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또한 자세히 보면 고문, 자문위원과 같은 고위 임원이 속한 마을이라고 하여 회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운영위원 역시 마을마다 2명씩 정확히 배정된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리의 경우 총 회원 3명 중 운영위원이 2명인 것에 반해, 내천의 경우 총 회원이 20명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재경울곡면향우회를 대표한다. 또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향우회 관련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러한 직무를 맡는 회장 선출은 회원 중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고 회원들 간의 ‘신망’이 두터우며 향우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추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경제적 능력’은 향우회 기금을 확보하거나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다. 다음으로 신망은 회원들 간의 화목을 돈독히 하고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향우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향우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한다는 것은 향우회 내부의 모임이나 행사뿐 아니라 상위 단체인 군향우회 행사나 고향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능력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다.

향우회의 연혁에 따르면 초대 회장 이후 현 12대까지의 회장은 집행부에서 부회장, 감사, 총무, 운영위원 등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추대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초대 총무를 맡았던 이희중 씨의 경우 2대 회장을 역임했고 2대 총무를 맡았던 김용달 씨는 7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8대 집행부 때 부회장을 맡은 전인구 씨는 9대 회장을 역임했다. 나머지 회장은 부회장 중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추대하게 된다고 한다.

고문은 보통 전직 회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추대되는데 회원 중 연장자로서 총회에서 추천을 거쳐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향우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이들의 임기는 회칙에는 1년으로 되어있지만 연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문위원은 과거 부회장,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거나 일반회원 중 연장자를 중심으로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이들의 역할은 향우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추대하고 향우회의 재산현황 및 경리사항을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향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서 면내에 있는 14개 법정리 출신별로 각 2명씩 총 28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향우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고 운영위원의 의결 정족수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나아가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러한 마을별 운영위원 2명은 초등학교 선후배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연령 차이는 5~6년에서 많게는 8~9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운영위원의 선후배 관계는 같은 마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많으면 관계가 소원하여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어렵고 또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신을 기준으로 위, 아래 3~4년 정도 차이가 나게 마을별

운영위원을 선정하여 그 마을 사람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마지막으로 총무의 경우 회장을 보좌하고 향우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향우회의 총무는 1983년 창립 때부터 2000년까지 한 명의 남성이 맡았으나 제7대 집행부 때부터는 남녀총무 각 한 명씩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회원 중 여성 회원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향우회 관련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안내는 총무가 맡아하게 되는데,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 회원들의 경우 동성의 여성총무가 연락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거나 여성향우들을 대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남녀총무는 군향우회와 관련된 일들도 담당한다.⁷⁾ 이러한 역할을 맡는 총무는 주로 임원회의에서 선출되는데 향우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회원들이 추천하거나 회장이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발된다. 현행 남녀 총무의 관계는 영전초등학교 선후배의 관계이다.

재경합천군 향우회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재경울곡면향우회 임원은 총 11명이다. 이들 임원은 거의 매 달 열리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 군향우회 모임의 참석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모임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면 향우회의 입지의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향우회의 회칙에 따르면 일반회원의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울곡면 출신 및 연고자로 되어있다. 그리고 회원의 탈퇴는 따로 규정이 없고 회원 가입은 개인의 자유의지, 친구의 권유 혹은 선후배의 권유에 의한

7) 군향우회와 관련된 남녀총무의 일은 1월의 군 향우회 부장단, 남녀총무단 연수 및 등반대회, 2월의 임원회의 및 재경 경남도민회 정기총회, 3월의 군향우회 정기 총회 준비 및 합천군 벚꽃마라톤대회, 4월의 군향우회 정기총회 참석, 7월의 군향우회운영위원회, 9월 군향우회 체육대회 준비, 10월의 군향우회 체육대회, 합천군 대야문화제, 재경경남도민회 등반대회, 11월의 군향우회 한마음 체육대회 결산 및 송년회 등이다.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기총회나 군향우회 체육대회 등의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혹은 향우들 간의 비공식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실제 향우회 가입 연령은 따로 규정이 없지만 보통 40세 이상인 사람들이 주로 가입한다.

그러나 향우회의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일반회원들이 가장 편안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각 기술별 동창회 모임을 통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재경울곡면향우회의 창립과정에서 각 초등학교 동창회가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논의한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까닭은 각 지역별, 기수별 초등학교 동창회의 창립 시기나 규모 등은 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동창회 모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지역별, 기수별 동창회 모임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일반적인 단체모임과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기수별 동창회 모임의 회장과 총무는 향우회 집행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고 그러한 연결고리는 향우들의 향우회 회원가입을 용이하게 돕는 기능을 한다.

체육대회나 비공식적인 모임과는 달리 후술하는 정기총회 프로그램 속에 ‘참석자 상호 인사’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때 자신을 공개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

자기소개는 기회가 주어지면 당사자는 동네 이름과 어느 초등학교를 몇 기로 졸업했는지 밝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울곡면 내의 초등학교가 한 때는 6개나 존재했기 때문에 어느 초등학교 졸업생인지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자타를 구별하려는 의식 혹은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와 구별하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 나이를 묻고 학교 졸업 기수를 물어 같은 시기의 졸업생인 점이 확인 되면 비록 초등학교가 다르다하더라도 같은 동창으로 묶여지고 차이가 나면 선·후배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면 선배에게는 예를 갖추어 깎듯이 대해야 하는 것은 불문율로 되어 있다. 반면 선배들은 후배에 대해 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모임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여러 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그들이 고향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새롭게 가입한 향우를 파악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향우회 회원들이 ‘그 사람의 이름과 마을 이름만 들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안다.’고 표현한다. 이는 그 지역마을 출신자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부모, 형제, 선후배, 친척 등과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름을 통해 그 마을의 생활문화를 상기시킴으로써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름이나 마을의 호칭은 그 마을 출신자들의 정체성을 명시할 뿐 아니라 그들의 계보를 의미하고 그들 나름의 호칭을 통해 비로소 재경울곡면향우회 회원으로 인지된다. 그런데 같은 면 출신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나 그 이후 다른 마을 선후배들과 잦은 교류나 교제가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에는 정기총회, 군향우회 체육대회 등 향우회의 공식적인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재경울곡면향우회 구성은 고향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선후배를 토대로 회장, 고문, 자문위원 등의 수직적 관계와 마을별 운영위원, 기수별 동창회라는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단체를 결합시키는 구심점으로서 향우회의 집행부와 그 내부에 존재하는 각 기수별 동창회 조직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경울곡면향우회의 행사와 활동에 대해 살펴보자.

3. 재경울곡면향우회의 행사와 활동

1) 정기총회

재경울곡면향우회에서 개최하는 공식적인 행사에는 1월의 신년하례회, 6월의 정기총회, 10월의 재경합천군향우회 체육대회, 12월의 망년회 등이 있다. 이러한 행사들 가운데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는 행사는 6월의 정기총회와 10월의 체육대회이고 나머지 행사는 일반회원들도 참석이 가능하지만 주로 향우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열린다.⁸⁾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정기총회와 체육대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기총회는 재경울곡면향우회에서 매년 6월 둘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는데 전체 향우들이 모이는 행사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행사로서 모임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⁹⁾ 정기총회는 한 달 전쯤에 열리는 임원회의(혹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먼저 총무는 회장이 준비한 안내문을 받아 모든 향우들뿐 아니라 고향에 있는 기관단체에도 우편발송을 한다. 그리고 고향 합천에서 발행되는 신문사에도 연락하여 행사 관련 기사를 게재하여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기총회 행사는 보통 대형 식당을 빌려 주로 저녁 시간대에 개최하는데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¹⁰⁾ 먼저 행사장에 도착하면 접수대에서 접수를 하고 회비와 찬조금을 낸 다음 추첨권을 받아 행사장 안으로 들어

8) 실제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신년하례회나 망년회가 개최되었던 적은 없었지만 임원회의를 겸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개최된 적은 있다.

9) 정기총회는 향우회 창립 이래 매년 4월에 개최해 왔으나 2005년부터는 매년 6월 둘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10) 1983년부터 2001년까지는 향우회 회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개최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개최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육군사관학교 경내에서 개최하였다. 그 후는 용사의 집, 육군회관 등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의 변화는 해가 거듭되면서 회원 수가 증가하여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가게 된다. 행사는 1부 만찬, 2부 정기총회, 3부 여흥 및 행운권 추첨의 순으로 이어진다. 1부의 만찬에서는 집행부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만난 향우들과 환담을 나누는 시간이다. 또 새롭게 가입한 회원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 회원들의 식사가 끝나면 정기총회에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참석자 상호 인사, 회장단 및 임원 소개, 회장 인사말씀, 격려사, 축사, 보고 사항, 율곡편가 제창의 순으로 이어진다. 3부에서는 향우들의 노래자랑과 경품추첨이 끝나면 정기총회는 막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향우들이 돌아갈 때 집행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고 10월에 있을 군향우회 체육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삼삼오오 귀가한다.

정기총회 때의 좌석배치는 맨 앞 줄 중앙은 향우회 회장, 고문과 내빈이 앉고 그 양 옆 좌석에는 자문위원과 부회장단이 앉도록 한다. 그 다음 줄부터는 일반 향우들이 각 마을별로 정해진 자리에 앉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임원과 일반회원을 구별 짓는 좌석배치는 회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윗 사람에게 대해 예를 표현하는 유교적 관념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점은 일반회원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처음에는 같은 마을 사람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답소를 나눈다. 그러다 점차 시간이 흐르자 일반 향우들은 앉은 자리를 옮겨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을 찾아가 각 기수별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앉거나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 그 결과 마을별로 배정된 자리에 같은 마을 사람들만 앉은 경우는 거의 드물다. 여기에는 암묵적인 위계질서가 작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아무리 같은 마을의 고향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엄연히 인생에서의 선후배관계, 학교에서의 선후배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마을 출신이 아닌 사람의 경우 서로의 나이를 물어 예를 갖추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신 초등학교의 기수를 물어 그에 상응하는 예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나 연장자와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총회의 실질적 자석차지는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를 재확인하고 연장자에 대한 경로사상이 발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총회에서 모금한 찬조금은 한 해의 살림을 살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된다. 일반적으로 찬조금을 내는 데에는 회원들 사이에서 암묵적 동의가 작용하고 있다. 찬조금은 기본적으로 회장보다 많이 내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정기총회뿐 아니라 후술하는 체육대회 등 공식적, 비공식적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찬조금 명부에 가장 먼저 기록하는 사람도 회장이다. 단체의 장인 회장이 먼저 찬조금을 내고 명부에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뒷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유교적 관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원들은 회장이 얼마를 내는지를 살핀 뒤 자신이 얼마를 낼지 결정하게 된다. 이는 회장보다 찬조금을 많이 내지 않는 것이 회장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뿐 아니라 단체의 위계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암묵적 규정은 모든 회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에게 좀 더 많은 찬조금을 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그 구체적 방법에는 일정 수의 회원을 부회장, 자문위원으로 추대하는 제도가 있다. 이는 비단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수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찬조금 금액은 회원의 지위에 따라 또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회장은 50~100만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10~20만원, 부회장은 10~30만원, 일반회원은 10만 원 이하를 낸다.

정기총회가 끝나면 여흥 및 행운권 추첨이 이어진다. 여흥 시간에는 주로 노래자랑대회를 하는데 먼저 회장, 고문, 자문위원의 순으로 신청곡을 받아 노래를 한다. 특히 일반향우들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기수별

로 구성된 단체 팀이나 마을 별 단체 팀이 출전하여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노래자랑이 끝나면 집행부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이 그 결과를 단체상과 개인상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그에 따라 상품을 차등 지급한다. 상품 내용은 후술하는 경품과 동일하게 생활용품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단체상의 경우 참석인원이 가장 많은 팀에게 주어지는 ‘화합상’, 출연진 전원이 노래로 단결된 모습을 보인 팀에게 주어지는 ‘하모니상’ 등이 있고 개인상의 경우 노래를 잘 부른 순위에 따라 상품을 지급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노래자랑대회가 끝나면 참가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경품추첨에 들어간다. 경품추첨은 주로 고문, 회장, 자문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하게 된다. 경품은 자전거, 전기밥솥, 선풍기, 화장품 등 생활용품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경품은 개인 사업을 하는 향우들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기금으로 마련한 것도 있다. 경품추첨이 끝나면 폐회식이 이어지고 정기총회는 막을 내린다.

향우들이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주된 목적은 오랜만에 자신과 같은 마을 사람 혹은 이웃마을 사람, 고향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먹고 마시며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또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 또한 고향사람들뿐 아니라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모임의 운영현황 파악과 여흥시간에 함께 노래하며 춤추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고향 이미지를 공통적으로 그릴 수가 있고 고향을 한층 강하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정기총회는 재경울곡면 향우회 회원으로서 또 울곡면 면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공식적인 장이라 할 수 있다.

2) 재경합천군향우회 체육대회

재경울곡면향우회 회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는 앞서 논의한 정기총회 외에 재경합천군향우회에서 주최하는 ‘재경합천군향우

회 체육대회’(이하 ‘체육대회’)가 있다. 체육대회는 올해(2012년)로 29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합천군 내 1개 읍, 16개 면의 재경향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국회운동장에서 열린다.

체육대회 행사는 매년 4월 말에 개최되는 재경합천군향우회 정기총회를 거쳐 그 해 행사로 정해지면 군 향우회에서는 8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한편 재경울곡면향우회에서는 행사 개최 1개월 전에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체육대회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한다. 구체적으로 임원회의의 참석자는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들이 모여 당일 날 행사에 필요한 구성원 및 그 역할분담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일 날 행사와 관련한 알림장 작성 및 유·무선을 통한 연락은 총무가 맡고 행사 당일 날 접수 및 기념품 증정 등은 운영위원이 맡으며 내외 귀빈 및 중요한 손님맞이는 회장이 맡는 형식이다. 또 행사 당일 날에는 회원들에게 점심과 술, 안주, 다과, 기념품 등이 제공되는데 이러한 물품의 구입은 주로 총무가 맡게 된다. 그리고 총무는 행사 전날 오후에 다음 날 행사가 열리는 현장에 도착하여 텐트 설치, 본부석 자리 준비 등 잡다한 일을 하게 된다.

행사 전 날 다른 면 향우회의 총무들, 군 향우회의 부장들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체육대회 행사 준비과정은 비록 서로 소속이 다른 면 향우회 회원들이 모인 집합체이지만 같은 고향사람 즉 ‘합천사람’이라는 의식이 발현되고 유대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시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체육대회 당일 날 총무들은 아침 6시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지만 행사 전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하고 입장식에 맞추어 새벽 일찍 출발하여 상경하는 울곡면주부농악대, 울곡면 기관단체장 등 고향 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10시 개회식에 맞추려면 적어도 아침 5시에 버스에 탑승해야 제 시간에 맞추

어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거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 3~4시에 집을 나서야 하는 사람도 있다.

먼저 총무를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사전에 배당된 자기 면 자리에 현수막, 안내판, 접수대 설치, 주변 정리 정돈, 기념품 준비 등의 일을 한다. 또 당일 날 회원 및 손님들에게 제공할 음식, 음료수 등을 준비한다.

이렇게 체육대회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삼삼오오 혹은 개인적으로 향우회 안내판을 보고 모여들기 시작한다. 회원들이 도착하면 접수대에서 접수를 받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부회장단 혹은 운영위원 남녀 2~3명이 맡아한다. 이들은 오래 동안 향우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전임 총무 혹은 운영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향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향우들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고 향우들도 그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접수가 시작되면 향우들은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찬조금을 낸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받아 먼저 도착한 향우들과 인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게 된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찬조금을 낸 사람의 이름과 금액을 적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텐트 처마에 매달아 둔다. 이는 그 사람이 향우회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향우들에게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 향우들에게 제공되는 행사 기념품은 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체육대회용 유니폼, 모자, 타월 등 생활용품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기념품은 영전초등학교 13회 졸업생인 전인팔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통해 구입한다. 체육대회 때 입는 유니폼과 모자를 갖춘 복장은 각 면 향우회를 특정 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개회식을 앞두고 각 면 향우들은 본부석 앞을 지나는 입장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본부석에 있는 군 향우회 임원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각 면의 입장식 장면이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또 다른 향우들로부터 얼마나 높은 호응도를 얻느냐를 점수로

산정하여 등위를 매기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 면 향우회에서 손님맞이와 체육대회 행사를 준비할 동안 운동장 한 코너에는 합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한 ‘합천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이 마련된다. 판매장에는 합천군 내에서 생산되는 한약 재료, 고추장, 쌈장, 재래식 간장, 버섯, 고사리, 잡곡 등 100여 가지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또 판매장에서는 즉석에서 시식, 시음을 해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향우회는 회원 간의 상호부조, 친목도모라는 문화, 심리적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그 일부를 대신하는 형태로 등장한 것이 체육대회 행사 때에 대회장에 마련된 ‘합천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이다. 이곳은 고향의 향수를 자극하는 특산물, 어머니의 손맛, 혹은 고향과 결부시킨 이벤트를 열어 고향의 사투리를 접하게 함으로써 출향인사의 애향심을 자극한다. 그리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같이 참석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동향인으로서의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합천군에서 전개하고 있는 ‘합천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운동은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층 구체화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체육대회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사당 경내 운동장에서 하루 동안 열린다.¹¹⁾ 참가규모는 주최 측의 자료에 따르면, 향우회원 4,800명과 외부 초청인사 200명 정도이다. 대회식순은 선수단 입장, 국기, 군기, 종합우승기 입장, 종합우승기 반납, 내빈 소개, 개회선언, 국민의례, 대회사, 축사, 선수대표 선서, 합천 애호가 제창, 선수단 퇴장의 순으로 이어진다. 본격적인 체육대회 및 농악경연대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된다. 대회가 끝나면 각 면 향우회가 개별적으로 ‘농악! 한마당 어울림’이 이어진 뒤 종합 성적발표, 시상, 경품추첨, 폐회선언의 순으로 이어진다.

11) 체육대회 장소는 2000년까지 동부 이촌동의 한강변에 있는 야외운동장이었는데 2001년부터 국회의사당 경내 운동장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각 면 향우회의 선수단 퇴장이 끝나면 체육대회 경기가 시작된다. 종목은 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종목은 줄다리기, 400m계주, 윗놀이, 족구 4종목이다.¹²⁾ 이러한 종목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 혹은 체육대회 때 누구나 한번쯤 체험한 것들이고 또 고향 마을에서 즐겨 놀았던 종목들이다. 또한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대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우들 간의 단결력이 중요하다. 혼신의 힘을 다해 줄을 당기고 뽀박질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어릴 때 느꼈던 고향에서의 추억을 되살리며 향수를 느낄 수 있다. 경기 대진표는 각 면 총무와 부장들이 모여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에서 제비뽑기로 결정된 토너먼트형식이다. 본부석의 안내에 따라 자기 면의 경기 순서가 정해지면 선수단, 응원단이 측석에서 꾸러지고 고향에서 올라온 농악 팀도 응원에 가세한다. 각 경기 종목의 운영은 본부에서 선출한 종목별 심판들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체육대회는 면 향우회의 결속력과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문화장치인 만큼 당해 구성원들 누구나가 이기려고 하는 기대심리가 사회적 희소가치를 낳는 원천이 된다. 또한 체육대회 종목은 참가자들이 누구나 한 번쯤 유년시절에 고향마을에서 경험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체육대회 종목은 어릴 때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면 대항전이라는 경쟁시스템은 울곡면 사람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체육대회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점심식사를 함께 겸하게 되는데, 음식 준비는 주로 여성총무를 위시하여 여성 운영위원들이 맡게 된다.¹³⁾

-
- 12) 최근 10년간 체육대회 종목에 새로이 추가되었다가 중간에 배제된 종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타이어 굴리기, 2004년 패널티킥 차기, 2005년 지구분몰리기와 줄넘기 등이다. 한편 2006년부터 추가된 종목은 오자미던지기가 있다.
- 13) 향우회의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점심 메인 메뉴는 도시락(1993~1996년, 2001년, 2004년), 소머리국밥(1997~2000년), 육개장(2002년, 2003년, 2005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2009년의 경우 집행부에서 준비한 음식은 추어탕, 수육, 과일, 안주, 술, 음료수 등이었다. 이 중 메인 요리인 추어탕은 영전초등학교 17회 졸업생인 전순임씨가 준비를 한 것이다. 그녀는 1978년에 상경한 뒤 지금까지 추어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의 추어탕 가게는 자주 재경 영전초등학교 17회 동창생들의 동창모임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녀가 만든 추어탕은 고향 울곡에서 주로 먹었던 추어탕의 맛을 잘 살리고 있다는 동창생들의 평이 향우회 임원회의에서 반영되어 2006년부터 준비를 부탁하게 되었다고 한다. 초가을 약간은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날씨 속에 따뜻한 추어탕을 먹으며 고향의 맛을 즐기는 향우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랜만에 고향에서 먹었던 추어탕을 먹을 수 있어 참 좋았다.”고 한다. 심지어 추어탕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이웃면 향우회 회원들이 많을 정도이다. 수육은 체육대회 행사 당일 날 고향팀이 상경하기 직전 고향에서 준비해 온다. 그리고 과일의 일부는 앞서 언급한 ‘합천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에서 구입한다. 이 점은 향우회의 고향발전을 위한 기여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후술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음료수와 마른안주 등은 이웃면 출신인 재경쌍책면향우회 총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구입한다. 그는 재경울곡면향우회 여성총무의 중학교 선배이다.

체육대회가 끝나면 이어서 농악경연대회가 펼쳐진다. 농악경연대회는 고향 합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면 농악대가 평소 갈고닦은 그들의 기량을 향우들 앞에서 펼치는 것이다. 이때 해당 면 향우들도 함께 나와 농악대의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며 응원에 가세한다. 이는 농악대와 향우들이 얼마나 협력하여 화목을 이루는지가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고향에서 상경한 각 면 농악대 팀은 재경합천군향우회 회원이 아니다. 그러나 향우들은 같은 고향사람이라는 동질성 하나만으로 그들을 향우회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고향 마을에 있는 농악대 팀을 매년 참가시키는가에 있다.

풍물은 고향 마을의 세시풍속 행사 즉 특별한 날에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거리였다. 또 마을에 경조사가 생겼을 경우 반드시라고 해도 풍을 정도로 풍물이 함께했다. 그리하여 향우들에게 있어 풍물은 그 자체만으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내재화되어 있는 그들의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데 좋은 기제가 된다. 또한 풍물은 마을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성되고 전승되어 온 것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도 출향인사들에게 고향을 연결시켜주는 정신적인 연결고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농악경연대회가 끝나고 나면 각 면 향우회에서는 해당 면 텐트 주변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모여들기 시작한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적힌 농기를 앞세운 기수가 선두에 서고 상쇠가 리더를 하면 그 뒤를 이은 농악대의 풍물 가락에 맞추어 향우들과 고향에서 찾아온 각종 사회단체 기관장들도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추며 즐긴다. 고향에서 상경한 사람들과 향우들의 어울림은 고향을 한층 가까운 존재로 느끼게 하고, 일시적 이나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고향사람이라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나면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체육대회의 공식적인 모든 행사는 끝나게 된다. 그러나 면 향우회의 행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멀리 고향마을로 되돌아가야 하는 고향 팀을 배웅하는 의식이 남아 있다. 향우회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향우와 고향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향사람들을 위한 격려금 전달식과 함께 회장의 인사말이 뒤 따른다. 격려금 형식의 경제적 지원은 향우회의 고향발전에 대한 기여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후술하도록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재경합천군향우회 체육대회는 경기종목과 농악경연대회에서 면 대향전의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좁게는 읍곡 면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재경합천군향우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넓게는 합천군민의 정체성을 재

확인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재경울곡면향우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요인은 체육대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흥시간을 통해 그 즐거움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는 응집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회원들 간 상호부조로서의 경조사 참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은 앞서 언급한 정기총회, 체육대회 등의 정기적 행사 외에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를 통한 비공식적 모임이 있다. 회원 중에 경조사가 생겼을 경우 그 정보는 직접 총무에게 전달되거나 혹은 회장에게 전달되거나 한다. 또 당사자의 친구 등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무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그러면 총무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회원에게 알리거나 특정 회원들에게만 알리기도 한다. 즉 회원의 경조사라고 해서 모든 회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것은 회원들 간의 친밀감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아무리 같은 고향 사람이라 하여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소 잦은 교류를 통해 친분이 쌓이지 않았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들에게까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의 경조사가 생기면 향우회에서는 기금으로 축하 화환을 보내거나 조화를 보내고 회장을 비롯한 몇몇 회원들이 직접 참가하여 축하 또는 애도를 표한다. 특히 총무는 회원 중에 상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이는 향우회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경조사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할 경우 회장이 모임의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처사라고 문제시 되거나 회원들 간의 친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는 과거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향우회에서 지원한 내용과 그 지출 비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표를 보면 주로 결혼식, 장례식 등 회원의 경조사와 관련한 지원에

〈표 2〉 회원 경조사 관련 내역

년 월 일	내용	비고(단위 원)
1993년12월17일	군향우회 김병조회장(회환)	100,000
1993년10월23일	이재복씨 사무실개관(거울선물)	70,000
1995년6월18일	조삼섭씨 마포구청장후보 협조금	300,000
1997년3월28일	임원회의 및 전인구장군 승진축하 모임식대	1,000,000
1999년7월27일	식대(주술일씨 별세)	30,000
2000년7월7일	정우길고문고양시영남향우회회장발기회축하회환대	100,000
2001년10월12일	정정식씨 부친상시(합천)교통비보조(정충웅	30,000
2002년4월12일	이재복향우 군수출마찬조금	1,000,000
2002년10월12일	문신부사망 조화대(노양출신 운영위원)	100,000
2003년4월14일	이도수부회장 처 사망(4월4일) 조화대금	100,000
2003년4월25일	김용달회장 자 결혼 회환	100,000
2003년11월29일	정인덕감사 모친별세 조화대금	100,000
2004년3월31일	백남석향우사무실개소(자민면 종로)회환대	100,000
2004년9월11일	문만홍(전 울곡면장)사망 조화대	100,000
2005년4월29일	이충현 운영위원장 자 결혼 회환	130,000
2005년7월19일	정우길 전 회장 모친상 부의금	100,000
2006년10월28일	전계자총무모친상조화/부조(부산)	200,000
2006년12월19일	갑산 조상섭향우 사망조화(강남성심병원)	200,000
2006년12월23일	초계향우회 년말행사회환증정	100,000
2007년6월4일	강경진 고문 자녀결혼 회환	100,000
2007년7월30일	서경택 울곡면장취임 잔 화분	100,000
2007년9월19일	조올제고문 건대병원영안실조화	100,000
2008년1월11일	배주환총무모친상 조화	100,000
2008년3월3일	이도수자문위원 형님상 조화	100,000
2008년9월19일	주석환 향우 장남 결혼식 회환	100,000
2009년11월14일	허태갑 자녀 결혼 회환	100,000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고 사무실 개관, 승진 축하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경조사는 단순히 해당 향우들이 경조사에 참석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곳은 재경향우들, 경향 각지에서 모인 고향사람들을 동시에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또 그러한 시공간에서 향우들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함으로써 고향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층 가깝게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지역 사회기관장 선거와 관련하여 축하 회환을

보내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사례도 있다. 구체적으로 1995년 마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조삼섭씨에게 3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에는 합천군수로 후보로 출마한 이재복 씨에게 1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사례는 향우회가 정치적 성격을 띤 단체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반드시 재경울곡면향우회 회원이 아니라도 경조사가 있을시 향우들의 마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고향 울곡면 면장의 이·취임식, 울곡면 청년회장의 이·취임식 등 고향의 기관단체장과 관련된 경조사의 경우에는 꼭 챙기고 있다. 이는 고향에 있는 기관단체장과의 연결고리를 공고히 하는 방법이 된다.

회원들 간의 비공식적 모임의 장으로서 회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친목을 다지는 곳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 있는 음식점 석산정은 향우회의 정기총회 혹은 임원회의 장소로 몇 해 동안 사용해 왔다.¹⁴⁾ 또 보산정은 앞서 언급한 이회종 고문의 보석상 가게이다. 이곳은 주로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등 향우회의 연장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회원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식당 등을 어느 마을 출신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는 정기총회, 임원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회원들 간의 안부나 친구들, 친척의 근황 그리고 고향 마을에 대한 소식 등이 대화 내용의 주된 화제로 등장한다. 또한 그들은 과거 어릴 적 고향 마을에서의 생활에 대한 추억거리를 나누며 향수에 젖어들기도 한다. 나아가 고향 마을에서는 직접적 연관이 없었던 사람도 같은 고향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다. 향우회의 정기총회나 체육대회는 회원들이 공식적으로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식당이나 가게는 비공식적으로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14) 석산정은 울곡면과 인접한 초계면 출신의 정○자(59, 여) 씨가 운영하는 생태탕 전문점이다.

있는 장이요, 결속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들의 고향에 대한 시선은 단순히 과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한 오늘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과거에 비해 쉬운 일이 되었고 재경울곡면향우회를 비롯하여 고향의 화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서울 시내 곳곳에 형성되어 각각의 자리에서 고향을 공유함으로써 회원들의 관계가 이어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前川智子 2008: 23).

4) 향우회의 고향발전에 대한 기여

재경울곡면향우회는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사업 중 그 첫 번째로 ‘향토발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표 3>은 향우회에서 고향 발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1994년부터 2010년까지의 회계장부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향우회는 고향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적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 향우회가 고향에 공식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9,998,600원에 달한다. 이러한 지원은 고향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타지에서 생활하는 출향인사와 고향과의 친밀감을 더욱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향우회에서 고향에 지원한 항목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향의 시설과 산업에 대한 지원이다. 노인정 준공 및 울곡면가노래비 건립, 청덕면 수해의연금 등이 시설에 대한 지원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고향 시설에 대한 지원은 15년간 총 150만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향의 산업에 대한 지원도 빠질 수 없다. 주로 고향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으로서 15년간 총 150만원의 지원을 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체육대회, 노래대회, 문화제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고향의 문화 지원에 속한다. 체육대회, 노래대회, 문화제 등의 활동은 서울과 합천을 오가며 서로가 부대끼며 만나는

〈표 3〉 향우회의 고향발전을 위한 활동 내역

년 월 일	항목 및 내용	금액(원)
1994년 4월 1일	울곡면 노인정 개관식 화환 기증 서울-합천 왕복차비(회장, 총무, 재복 3명) 합천식대 및 잡경비	100,000 63,600 35,000
1995년 9월 25일	울곡면 제1 노인 회관 준공식 경비	100,000
1995년 10월 8일	합천군 담배 팔아주기 배당금	90,000
1996년 10월 13일	군향우회 체육대회 참가 고향 팀 지원금 담배 팔아주기, 농산물 배, 사과 구입비	550,000 192,000
1996년 10월 25일	울곡면농협준공식화환3단	100,000
1997년 3월 28일	울곡면체육회 여비(강영건 회장 참석)	150,000
1997년 10월 27일	합천군 농협 농산물 팔아주기 부족금	185,000
1999년 5월 8일	울곡면체육대회찬조금	300,000
1999년 10월 10일	울곡면 청년회 여비	100,000
1999년 12월 17일	합천군 농협 농산물 부족금	35,000
2001년 5월 6일	울곡면체육대회찬조지원	200,000
2001년 10월 9일	합천쌀 차액 분(30포대*2,000)	60,000
2002년 8월 29일	청덕면 수해 의연금 면 향우회 분담금	200,000
2003년 9월 18일	추석날 울곡면청년회 노래자랑찬조금	200,000
2003년 10월 5일	고향농산물 구매: 쌀(10kg) 10포; 22,000원씩, 사과 3상자; 35,000원씩, 배 2상자; 40,000원씩	405,000
2004년 2월 26일	울곡면가 노래비 건립 협찬금	1,000,000
2004년 5월 14일	울곡면노래비제막식참석	100,000
2004년 10월 3일	고향농산물구매: 사과 4 상자	80,000
2005년 4월 24일	울곡면 면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참석, 찬조	300,000
2005년 10월 3일	고향농산물구매: 쌀(5kg) 15포, 사과 1상자 군향우회 체육대회 참가 고향 팀 지원금	235,000 800,000
2005년 9월 14일	울곡면 한가위 가요제(추석)	200,000
2005년 10월 8일	대야문화제 면 대항 체육대회	200,000
2006년 10월 22일	군향우회 체육대회 참가 고향 팀 지원금 합천농협 쌀 구입	1,050,000 60,000
2007년 10월 28일	군향우회 체육대회 참가한 고향 팀 환송자금	2,000,000
2008년 5월 10일	울곡체육대회협찬금	300,000
2008년 9월 23일	합천대야문화제찬조지원	200,000
2009년 2월 21일	영전초등학교교장학금	300,000
2010년 2월 19일	영전초등학교교장학금	300,000

것이기에 친목도모와 연계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향 풍물패 방문이나 체육대회에 참가한 고향 팀 방문의 여비에는 큰 지출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난 15년간

총 639만 8,6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30만원씩 영전초등학교의 장학금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평균 2회가량은 향우회의 고향발전 관련 활동이 있었다. 고향 문화 활동 지원은 거의 매년 꾸준히 있었으며, 고향 산업 지원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 두 가지의 지원활동은 향우회와 고향이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서, 먼 향우회의 조밀한 관계적 특성이 나타난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설에 대한 지원은 2004년 이후 뜸하며,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09년이 되어서 보이기 시작한다. 연도별 금액지출은 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은 고향 사람들을 서울로 초청한 문화행사가 있어 문화 활동 지원에 큰 금액을 지출하였다. 또한 2003년과 2005년에는 고향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에 많은 지출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재경울곡면향우회는 해마다의 필요와 행사에 따라 지원 금액을 유연하게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향우회 회원들은 고향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향우들은 ‘달집놀이’, ‘면민체육대회’, ‘한가위 가요제’ 등 울곡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사는 물론, 합천군 행사인 ‘벚꽃마라톤대회’, ‘수중마라톤대회’ 등에 참석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에는 개별적 혹은 몇몇 향우들이 모여 단체로 참석하여 찬조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지원을 한다. 그들의 행사 참석은 재경울곡면향우회를 대표하는 ‘내빈’으로 자리매김 된다. 그리하여 직접적으로 고향 행사에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향 마을 사람 혹은 각종 기관단체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그들이 고향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향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서울에서 개최하는 향우회의 행사에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고향 읍곡면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향우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을 경우 관련 단체의 고향사람들은 매우 서운하게 생각을 한다. 그것은 고향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출향 인사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무언가 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체육대회 때 고향 팀에 대한 격려금이나 고향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의 향우회에 대한 기여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읍곡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사에 대한 향우회의 기여 정도는 항상 타 면 향우회와 비교의 대상이 된다. 특히 재경합천군향우회 체육대회행사 때 고향 팀에 대한 지원금은 타 면 향우회와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된다. 그 까닭은 향우회 회원들이 공식적으로 고향 마을에 사는 개인 및 기관단체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체육대회를 통해 1년에 한 번 있지만 고향 팀은 고향 마을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정기적 모임과 행사를 통해 빈번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교류 과정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타 면의 재경향우회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된다. 따라서 타 면 향우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하거나 서운하게 할 경우 양자 간의 관계는 소원해진다. 환언하면 고향 마을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들의 향우회에 대한 기여 정도와 향우회의 고향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그 관계는 지속 발전 가능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상호 긴장 관계를 낳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재경합천군향우회 정기총회 참석을 비롯하여 군 향우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회장단과 총무단이 참석하는 실천적 행위는 읍곡 면민으로서 고향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향우회의 고향발전에 대한 기여방식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러면 역으로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재경에 있는 향우회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향토발전사업’을 향우회의 첫 번째 사업으로 꼽은 점에 주목된다. 고향 마을의 개인 및 기관단체의 활동에 대해 이해를 하고 협력해 줄 단체가 수도권에 있다는 것은 다양한 시책을 펼치는데 있어 하나의 장점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들이 재경울곡면향우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의 향우회 관여방식

울곡면은 타지로의 진출 증가, 면내 산업의 육성, 면 생산품의 판로 확대, 관광객 유치에 시책을 내 놓고 있다. 그러한 속에 면에서 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의 향우회는 면 상품에 대한 호의적인 고객으로서 판로를 확대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개최, 기업유치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후원을 향우회에 기대할 수 있다(金野啓史 2002: 78). 또한 마을에서 크고 자란 출향인사들의 조직을 잘 이용하여 그들이 홍보에서부터 자문, 지도 등 다방면으로 고향의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울곡 면장은 매년 ‘고향소식지’를 향우회 회장 앞으로 보내오는데 이를 총무는 정기 총회 자리에서 모든 향우들에게 전달한다. 그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어려운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울곡, 다시 귀향하고 싶은 고향’을 만들기 위해 3천여 면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 해 동안 면에서 실시한 다양한 성과사업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¹⁵⁾ 나아가 그동안 재경향우회에서 도움을

15) 다양한 성과 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최근 울곡면 제내리에서 생산하여 전국에 소비되고 있는 ‘첫눈에 반한 딸기’라는 상품은 고향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준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교육발전기금 기부’, ‘고향행사 참여’ 등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하고 있다.¹⁶⁾ 한편 이러한 고향소식을 접한 향우회 회원들은 고향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또 다른 사례는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들이 향우회의 공식적인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찬조금을 내거나 간접적으로 찬조금을 내는 행위는 향우회와의 유대관계를 한층 돈독히 하고 고향과의 직·간접적인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매개자의 기능을 한다. 나아가 향우회의 사업 중 하나인 ‘향토발전’의 실천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실천사항으로서 사업에 집어넣음으로써 고향과의 관계가 한층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즉 향우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모임에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가 관여함으로써 고향과의 친밀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동향집단으로서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표 4>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들이 향우회를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들은 대부분 재경합천군향우회 체육대회 행사 때 재경울곡면향우회의 내빈으로 참석한다. 물론 정기총회 때도 일부 기관단체장이 참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6년도 정기총회 때 울곡면 농업협동조합장이 참석하였다. 체육대회 때 참석한 울곡면 내 주요 기관단체는 울곡면사무소, 울곡면체육회, 울곡면청년회, 울곡면농업협동조합 등이다. 또한 그들은 체육대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재경울곡면향우회 회원으로서 참가하기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앞서 논의한 2009년도 군향우회 체육대회 때 각 면 향우회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기도 했다.

16) 2009년 6월 15일 팩스로 울곡면장이 보낸 ‘고향소식지’ 서문 참조.

〈표 4〉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의 향우회 지원 내용

년 월 일	개인, 기관단체 참석 및 찬조 내역(금액 원)
1994년 10월 9일	울곡면장(200,000),울곡면체육회(100,000),울곡면청년회(100,000),울곡면 부녀자 풍물놀이 팀
1995년 10월 8일	울곡면장(200,000),울곡면농협조합장(100,000),울곡면 부녀자 풍물놀이 팀
1996년 10월 13일	울곡면장(100,000),울곡면농협조합장(100,000),울곡면 부녀자 풍물놀이 팀
1997년 10월 19일	울곡면장(100,000),울곡면농협조합장(100,000),울곡면청년회(100,000),울곡면 부녀자 풍물놀이 팀
1999년 10월 10일	울곡면청년회(100,000)
2002년 10월 27일	김용균국회의원(150,000),울곡면장(100,000),합천군의회의장(50,000),초계면장(울진출신)50,000,울곡면 부녀자 풍물놀이 팀
2003년 10월 5일	울곡면장(100,000),초계면장(울진출신)50,000,쌍책면장(본천출신)50,000,울곡면청년회(200,000),울곡면농협조합장(100,000),울곡면체육회장(50,000),경남도의원(울진출신)30,000,울곡면 부녀자 풍물놀이 팀
2004년 10월 3일	울곡면장(100,000),울곡면청년회장(200,000),울곡면기관단체장(200,000),합천군의원(본천)50,000,울곡면 부녀자 풍물놀이 팀
2005년 10월 3일	울곡면장(100,000),울곡면농협조합장(100,000),울곡면체육회장(200,000),울곡면청년회장(100,000),청덕면장(임북)50,000,아로면장(영진)50,000, 울곡면 부녀자 풍물놀이 팀
2006년 10월 22일	울곡면기관단체장(300,000),울곡면 부녀자 풍물놀이 팀
2007년 10월 28일	울곡면장(200,000),울곡면농협조합장(200,000),울곡면기관단체협의회(200,000),울곡면자치총위원회(50,000),울곡면 부녀자 풍물놀이 팀
2008년 9월 21일	울곡면사회기관단체장일동(200,000),울곡면농협장(200,000),울곡면장,울곡면체육회장,울곡면청년회부회장,울곡면 부녀자 풍물놀이 팀
2009년 10월 25일	울곡면기관장일동(200,000)

도 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지원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향우회 행사에 참여하여 출향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로서 고향 농악대 팀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울곡면 내 기관단체들은 주로 각 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을 통해 찬조금만 내는 반면, 고향 농악대 팀은 매년 수십 명이 단체로 체육대회에 참여하여 재경을

곡면향우회를 대표하여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이 점은 농악대가 비록 고향에서 활동하는 단체이지만 향우회를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까닭은 향우회 내에 독립적인 농악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농악대는 단순히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체육대회 입장식, 각종 경기 때의 응원, 대회 종료 후의 뒤풀이 마당 등에서 향우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흥을 북돋아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악대는 향우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민속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내용들은 도시에 사는 향우와 고향과의 관계에 고향의 기관단체가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언하면 도시에 사는 향우와 고향과의 관계에 행정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개입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고향의 기관단체가 고향사람들의 조직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장면에서 연합하며 함께 ‘고향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현실적인 움직임을 전개하는 것은 향우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향우회와 고향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金野啓史 2002: 85). 이것을 단순히 시대적 상황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 점은 향우회의 결합 방식의 변화를 탐색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고향에 대한 관념 및 의식을 살펴보는 데 시사 하는바가 크리라 생각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가 향우회와 연대하고 다양한 장면에서 연합하면서 함께 ‘고향 발전에 기여한다.’는 현실적인 실천을 함으로써 향우들 간의 유대 관계가 돈독해 지고 또 향우회와 고향과의 관계가 한층 농밀한 관계로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환언하면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들은 향우회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보조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지난 4월 11일, 한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월 28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하면 안 되는 사항들을 공표했다. 그 속에는 향우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 모임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향우회가 정치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만큼 향우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재경울곡면향우회에 대해 밝혀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재경울곡면향우회의 창립배경에는 출향인사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사회생활에서 느끼는 소외감, 고독감, 열등 의식 등으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심리적 탈출구의 필요성에 의해 창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향 출신의 인물이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또 나라를 대표하게 되면서 향우회를 창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출향인사들에 의해 조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 동창회라는 학연과 율곡사람이라는 지연을 토대로 재경울곡면향우회가 창립되었다.

둘째, 향우들의 인적 결합은 개개인의 출신 마을이나 고향에 대한 생각만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손위 어른들이나 고향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선후배간의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이 그 존재기반의 토대가 된다. 또한 향우회 내부의 동창회 모임은 동창들 사이의 친목과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횡적관계와 선·후배 사이라는 종적관계로 되어 있다. 이 양자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생성되는 친밀한 유대관계는 향우회를 지탱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학교

를 졸업한 동문이라 하더라도 선·후배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질수록 향우회 구성원 사이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수직적 관계가 돈독해지려면 수평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후배들에게 너그워야 하고 존경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편 수평적 관계 또한 상호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그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향우회는 선후배 사이의 수직적 관계와 동창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지속 발전 가능한 모임이 될 수 있고 그 토대를 이루는 것은 동창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향우회는 동창회의 변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연장선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셋째, 향우회의 친목과 유대 강화를 중시하는 인간관계 형성은 도시에서도 고향을 실감하게 하고 모임의 지속을 견인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 재경울곡면향우회의 공식모임인 정기총회, 체육대회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임인 경조사, 기수별 동창 모임 등은 고향 마을의 생활양식 속에 있는 끈끈한 정 의 관습을 도시에 사는 향우들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그들 간의 결속을 지명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향우회를 통해서 생성되는 개개인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도시에 사는 고향사람들을 고향의 전통이나 생활관습에 결부시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향우회의 결속력은 단순히 같은 고향사람이라는 정체성에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즉 태어나 자란 마을을 떠난 그들이 바라는 고향은 과거 마을 생활이 이상화된 단순한 관념적 고향이 아니라 생활을 새롭게 재구축하고 출향인사들의 응집력으로 뿌리내리려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향우들은 다양한 사회단체에 소속하면서 향우회의 활동을 통해 도시생활을 보내고 있다(前川智子 2008: 9).

넷째, 고향의 발전을 위한 향우회의 활동과 향우회의 발전을 위한 고향에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들의 관여방식은 그 내용면에 있어 동질의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변형된 형태의 상호부조라

고 할 수 있다. 즉 표면적으로 ‘고향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모든 것이 수렴되고 서로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심층적으로는 상호 호혜성의 원칙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긴장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 논문에서 착안한 재경울곡면향우회의 조직과 활동은 출향인사들이 고향 마을에서의 관계를 도시에서도 유지,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집단을 구축해 나간다는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그들을 이어주고 있는 연결고리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다양한 모임이나 행사라는 결속의 기회를 통해서 형성되는 친밀감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향우회 중 최하위 단위인 면 향우회를 대상으로 분석, 고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경울곡면향우회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하였지만 논의의 결과를 한국사회에 무수히 존재하는 향우회의 조직과 활동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사례는 아니다. 다만 이러한 기초 작업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이 향우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다른 향우회들에도 적용하여 비교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한층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 언급한 남원지역 향우회와 비교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고 지역적인 차이도 파악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한 논의의 대상으로서의 향우회가 아니라 다양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향우회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논문접수일: 2012년 4월 12일, 논문심사일: 2012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6일

참고문헌

박성윤

- 2001 “도시 생활의 적응 기제로서의 향우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병은

- 2007 “향우회 사회자본과 지역주의”, 『사회과학연구』 23(3): 331~358.

이문웅

- 1986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생활 및 직업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현황의 당면문제』, pp. 101-153.

황익주

- 2002 “한국도시에서의 향우회의 조직패턴: 경기도 성남시의 사례연구”, 『지역사회학』 4(1): 107~142

金野啓史

- 2002 “同郷者集団と自治体: 岩手県陸前高田市の事例を中心に”, 『同郷者集団の民俗学的研究』, 岩田書院, pp. 57-88.

前川智子

- 2008 “郷友会における結集の民俗的仕掛け: 神戸沖洲会における沖永良部島出身者の民俗芸能の実践を中心に”, 『日本民俗学』 255: 1-32.

岩本通弥 編

- 2007 『ふるさと資源化と民俗学』, 吉川弘文館.

松崎憲三 編

- 2002 『同郷者集団の民俗学的研究』, 岩田書院.

〈Key concepts〉: Hyangwuhui (a friendship group of people who are from the same hometown), alumni association, Identity, Hometown, City

A Study of City Community through ‘Hometown’ as a Medium:

Focus on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of Jaegyeong
Yulgokmyeon Hyangwuhui

Lee, Seungsoo* · Lee, Gyub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roach the organization and activity of a group called Jaegyeong Yulgokmyeon Hyangwuhui (a friendship group of people who are from the same hometown) in a township unit as a research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hometown.” In detail, the study is to find out how people who left their hometown and moved to Seoul as the city of their main livelihood have organized, operated, and communicated in interchanges and against which background. Meanwhile, the study intends to review their thoughts about their hometown, the kind of activities their hyangwuhui has performed for the advancement of their hometown, and what are the expectations of local residents who reside in the hometown and social organizations of people who left

* Professor, Chung-Ang Univ.

** M.A. in comparative folklore, Chung-Ang Univ.

their hometowns from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The results include the following.

The Jaegyeong Yulgokmyeon Hyangwuhui mentioned in this study was established in 1983. The founding of this organization did not stem from the need for a psychological exit through which people who left their hometown desired to be freed from any sense of alienation, loneliness, or complexes that they had felt in urban life. That is, the need for establishing a hyangwuhui was proposed as some figures from a specific hometown became representatives of their region and country, and, meanwhile, such hyangwuhui was founded centering on school ties, namely an alumni reunion. The interpersonal combination of members is not continued only by any thought about the villages from which they come or the hometown of each individual. The hyangwuhui can be a sustainable meeting only when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juniors and seniors in age from the same hometown and the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alumni is in harmony, and it may be an alumni reunion that provides its foundation.

The form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at highly regard the reinforcement of friendship and bonding of a hyangwuhui makes the members feel nostalgia for their hometown even while in a city and functions as a locomotive for the continuation of the meeting. In detail, not only formal meetings such as a regular general assembly or athletic meeting, but also informal meetings including participation in family events and alumni reunions by class year serve to deliver the customary practice of strong attachment in the lifestyle of their hometown to people who left their hometown to

live in a city. Also, at the same time, it supports their gathering together; however, such cohesion of a hyangwuhui does not revert to an identity simply by the members being from the same hometown.

That is, it can be identified that a hometown that they imagine as persons who left the hometown where they were born and grew up is not a simple conceptual hometown in which the village living of the past is idealized, but it is a field on which they can newly restructure their living and be rooted with their unification. The way of their involvement in hyangwuhui activities for the advancement of their hometown and in personal and social organizations in their hometown for the advancement of the hyangwuhui may be a transformed form of the mutual aid that may be seen in today's society, although it is not of the same kind in terms of contents. In other words, it may be seen to be for the promotion of friendship between members while everything is converged superficially under the name of “for the advancement of hometown”; however, it can be in a strained relationship in which they agree 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in an implicit manner in depth.

From the perspective of research history, the organization and activity of the Jaegyeong Yulgokmyeon Hyangwuhui introduced in this paper may offer a view that people who left their hometown are building a new group while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relationship from the “hometown” even in a city; however, according to the researcher, the link that binds them is not a past memory but various relationships that are formed through opportunities for gathering together, such as diverse meetings or events.